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공모주제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야기

공모기간 및 자격

공모기간 2024. 5. 20.(월) ~ 7. 19.(금)

응모자격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기업 관계자(기 수상자는 제외)

*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범장병 중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

응모방법

응모방법 E-mail 접수(vnet@korea.kr)

원고분량 A4 용지 5매 내외

*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훈부소식·공지사항'에 게시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 2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우수상 (4명) : 각 1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장려상 (8명) : 각 5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 응모자(수상자 제외) 전원 모바일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심사기준

감동 및 진실성, 내용 구성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수상작 발표

2024. 8. 23.(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게시



※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3)

라:스픽 제대군인

안다미로

: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굿 JOB 굿 LIFE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보훈부

전국군대자랑

반드시 "모두가 함께"



순수예술가
예비역 해병 대위 백종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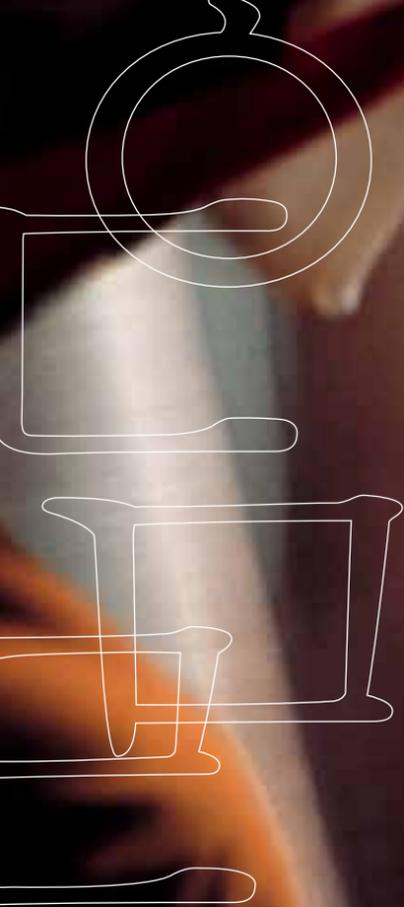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라:스픽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다미로

: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반드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게나.”

1950년 6월 25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돌아오겠다는 그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던 할머니. 참혹했던 전쟁 동안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매일같이 정성스레 밥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건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엔 할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던 할아버지의 희생과, 남아 있는 이들의 삶을 지켜줬던 할머니의 작지만 담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마다 6월이 돌아오면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넉넉하게 밥을 짓곤 하셨습니다. 푹푹 눌러 담은 밥공기와 제철 나물, 고기반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할머니의 밥상은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안다미로 사랑이었습니다.



Contents

통권 220호
 발행일 2024년 6월 3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y www.youtube.com/user/mpvakorea
 i www.instagram.com/bohun_story
 x x.com/hun2day
 b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안다미로
 :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06 매치포인트
 넘치는 재능을 꽃피운 세계 최고의 선수들
 마이클 조던 & 오타니 쇼헤이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08 리:스펙 히어로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초보 예술가의 창작활동 공간 시작
 *백종빈 예비역 해병 대위

12 선배의 노하우 Zip
 미래 도심항공 교통체계의 랜딩을 책임지는 '안전착륙'
 *김경환 예비역 해병 원사

16 굿 JOB 굿 LIFE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보훈부
 *차민혁 예비역 육군 중사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행복과 풍요로 가득한 아름다운 생활공간의 완성,
 영림에서 시작됩니다
 *영림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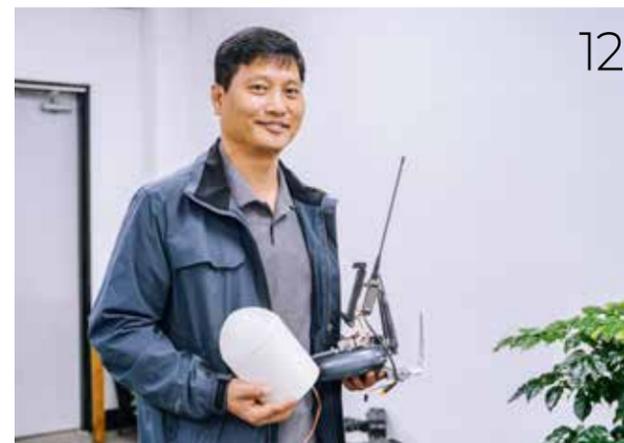
22 성공 길러잡이
 2024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24 Zoom IN
 가볍지 않은 영혼의 무게,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케어하다
 *㈜21그램그룹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로 알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 패키지

28 꿀팁전당포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잦은 유튜브 시청
 *인문학 유튜브 추천

30 백 투더 잡
 평안한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일
 *매골송 & 장례지도사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32 여행 보일지도
 한반도 한가운데로 빠져드는 여정
 *강원 양구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우리 집 창문에 드는 햇빛
 *박성일 선아키텍처 건축사사무소 소장

38 전국군대자랑
 반드시 "모두가 함께"
 *김성현 예비역 육군 대위

40 오늘도 ESG
 자연도 리필이 되나요
 *6월 16일 세계 리필의 날

42 다 함께 PLAY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천 도서

넘치는 재능을 꽃피운

세계 최고의 선수들

마이클 조던 & 오타니 쇼헤이

운동선수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 늘 상위권에 드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선수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수많은 선수들 중 넘치는 재능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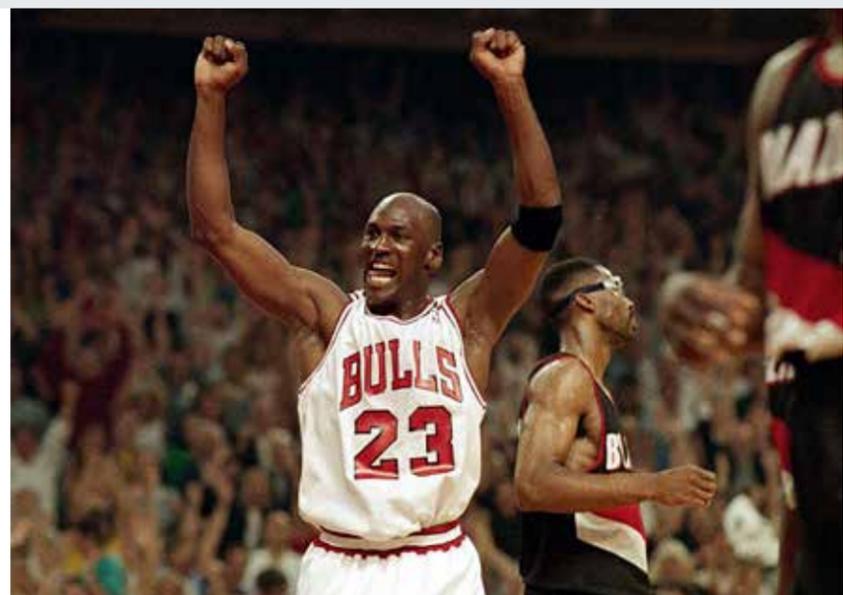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마이클 조던 - 출처, 중앙일보

Michael Jordan

매치포인트



마이클 조던 - 출처, 노컷뉴스

농구보다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농구의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라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모티브로 한 신발과 의류는 은퇴한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죠. 역사상 최고의 농구선수라고 추앙받는 마이클 조던, 그는 어떤 선수였을까요?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재능을 보이며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3개의 스포츠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농구 1군 선발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농구에 매진하게 돼요. 절치부심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키도 15cm가 자란 3학년 여름, 조던은 1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1982년, 신입생으로 출전하여 전미대학리그(NCAA)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올려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NBA 진출 첫해부터 조던은 팀의 에이스가 되었어요. 명장 필 잭슨 감독이 부임하고 팀의 조력자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조던은 1991년 NBA 첫 번째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993년 3년 연속 우승을 해서 쓰리핏을 달성해요.

하지만, 농구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순간 그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정신적 멘토였던 아버지 강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고통스러워하던 조던은 농구 선수를 은퇴하고 아버지의 꿈이었던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5년에 조던은 야구선수로서의 외유를 끝내고 다시 농구선수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초반, 예전만 못하다는 세간의 조롱을 받은 조던은 절치부심하여 더 혹독한 훈련을 해요. 그리고 1996년 다시 한번 NBA 우승을 이룹니다. 1997년과 1998년까지 연이어 우승하며 시카고 불스의 두 번째 쓰리핏을 이끌어요. 'The Last Shot'이라 불리며 우승을 결정지었던 조던의 마지막 점프슛은 농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NBA 리그 3연패와 은퇴. 복귀 후 또다시 3연패 달성이라는 기록은 그를 전설적인 선수로 만들어주었고, 덩달아 농구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의 반열로 올려 놓았어요.



오타니 쇼헤이 - 출처, 연합뉴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수, 오타니 쇼헤이

전 세계 모든 프로 운동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는 미국 프로야구 MLB 리그 팀 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약 9,200억 원)의 계약을 성사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운동선수가 되었습니

다. 오타니는 대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 최고의 야구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타니 쇼헤이는 아마추어 야구선수 아버지와 배드민턴 선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일본 아마추어 야구 역사상 최초로 160km/h를 던지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프로에 가서도 타자와 투수를 겸하기로 결심해요. 2013년 일본의 프로야구팀 니혼햄 파이더스에 입단하게 되고, 2014년에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승리와 두 자릿수 홈런(11승, 10홈런)을 달성해요. 2018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 진출, LA에이절스에 입단해서 '일본의 베이브 루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해 신인왕을 수상합니다. 2019년과 2020년은 부상으로 주춤하다가 2021년 투수로 9승, 타자로 46홈런과 메이저 리그 최초로 100이닝-100탈삼진-100안타-100득점-100타점을 뜻하는 '퀀투플 100'을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메이저 리그 MVP에 선정돼요.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는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하며 일본의 국민 영웅이 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학생 시절 작성했다는 '만다라트'라는 목표 달성 계획표를 보면, 본인의 인성과 운까지도 목표를 위해 단련하려고 해요.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오타니 쇼헤이의 성공은 이런 강력한 목표 의식과 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오타니 쇼헤이 - 출처, CNN

ohtani shohei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초보 예술가의 창작활동 공간 시작

예비역 해병 대위 백종빈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순수예술은 배고프고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순수예술이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며 가치를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낯선 길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비역 해병 대위 백종빈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영상 오철민



Interview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

대전시 유성구의 주택과 상가가 어우러진 골목. 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여진 간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벽면에 무섭지도 않고 그렇다고 귀엽지도 않은 약간은 고독해 보이는 얼굴의 호랑이가 계단을 내려오는 필자를 무심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통 하얗게 칠해진 벽면이 나온다. 벽을 따라 액자 걸이용 와이어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새로운 전시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 전시가 끝나서 잠시 휴식을 즐기는 듯도 하다. 공간의 가장 안쪽에서 꼬마 아이 둘이 이젤을 앞에 두고 스케치를 하고 있고 백종빈 대표가 그 옆에서 지도를 하다가 인사를 건넨다. 잠시 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 죽기 전에 각자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일들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후대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단,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요. 저는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가치 있고 완성된 미술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탄생한 작품들은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과 전시를 통해 유통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 종합 브랜드 ‘TIGER’의 목표입니다. 현재는 완성되지(=존재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롤모델을 찾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여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병정신을 예술로 승화하다

미술을 전공했는데 해병대를 지원했고, 군생활을 자그마치 14년이나 한 뒤에야 다시 원래의 전공 분야로 돌아왔다. 짧은 인생에 너무 멀리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20대 시절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조직에서 시간을 쓰고 싶어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어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군복무 중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의 자산입니다. 장교로 복무하면서 훈련계획을 작성할 때 훈련의 본질을 파악하고 잘 마무리 되도록 큰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본질(목표)을 파악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사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유통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병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상륙작전을 진행하듯, 어려운 여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예술의 대중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우려와 걱정을 더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회유하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백종빈 대표도 일을 시작하며 말리는 이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기존에 없던 길을 가려는 까닭은 뭘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저도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순수예술, 특별히 미술작품은 대중성을 띠기 어려울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예술은 배고프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며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 'tiger1area'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버리지 않고 일반적인 삶 또한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버리지 않고 일반적인 삶 또한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 **새로운 트렌드의 창조**

“타이거는 시각적인 모든 분야를 상품화하며 특별히 가치 있는 삶을 완성된 미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 '미래의 모습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결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타이거’는 10년 후에 유튜브와 인스타 다음의 트렌드가 되고자 합니다. 타이거스튜디오에서 이를 예상하여 개인의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한 완성도 있는 작품(상품)들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고 미래의 문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의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그에게 군생활을 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오늘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 개인의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남들이 수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길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백종빈 대표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들의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65



‘타이거’는 10년 후에 유튜브와 인스타 다음의 문화 트렌드가 되고자 합니다. 개인의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한 완성도 있는 작품(상품)들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미래 도심항공 교통체계의

랜딩을 책임지는 '안전착륙'

예비역 해병 원사
김경환

Kim Kyung-hwan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자신이 오랜 세월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군 후배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다. '안전착륙' 대표, 예비역 해병 원사 김경환 멘토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박재현

Passion



멘타: 멘토님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멘토: 저는 1992년 해병대에 입대하여 31년 복무하고 원사로 전역한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입대하여 약 1년간 전투부대 분대장으로 생활하던 중 해병대 훈련교관(39차)으로 선발되었고 훈련교관 보직을 마치고 공수교육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훈련교관 및 공수교육대 교관, 낙하산 포장/정비반장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대 후 지금은 제대군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비행체의 비상 낙하산 사출장치를 개발/판매/관리하는 업체인 '안전착륙'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Pioneer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전환을 위해 관련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멘티: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멘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드론 교육사업이고, 두 번째는 사용한 낙하산을 재사용하도록 정비하고 포장하는 낙하산 포장 위탁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형 비행체의 비상 낙하산 사출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낙하산 관련 업무 및 드론창업TF에 근무하던 중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개발하게 되었으며, 대형 비행체 비상 낙하산 사출장치 개발을 위해 2023년 전역을 결정한 뒤 현재 안전착륙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40kg 이하 발사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100kg 단위 1,000kg 단위의 발사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며 발사 장치가 개발된 만큼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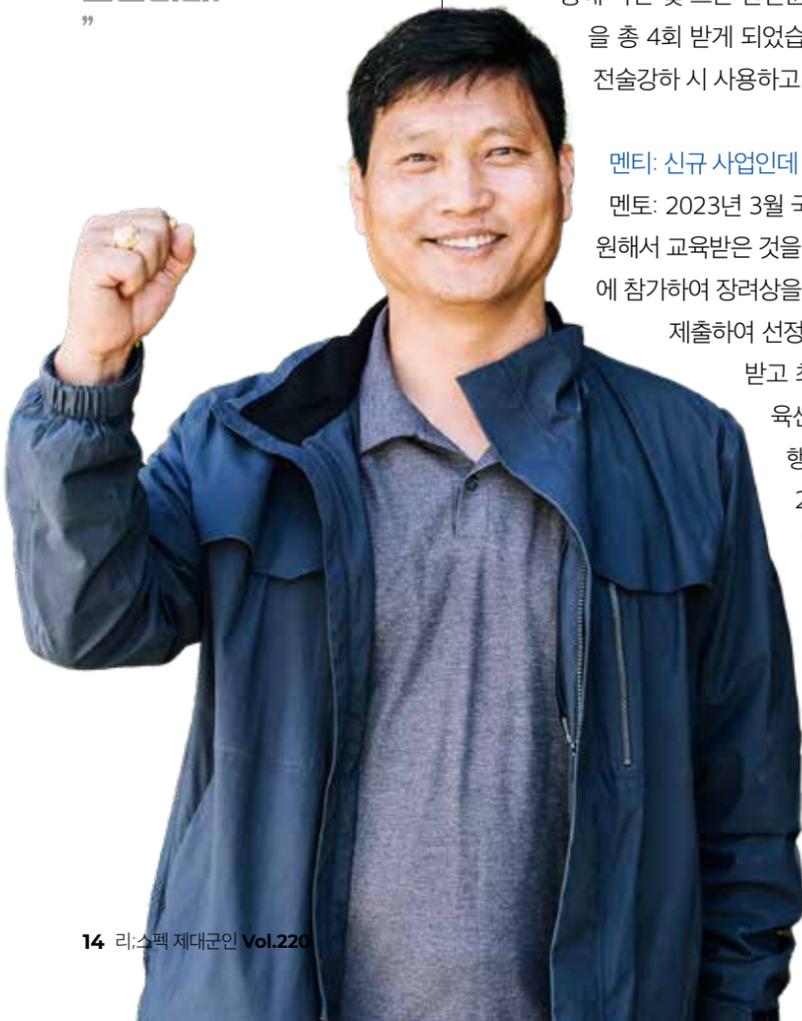
멘티: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드론을 접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멘토: 10여 년 전 미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은거지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군에 몸담은 입장에서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드론) 자격을 취득하고 2018년에는 지도 조종자,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흥미가 재미로 이어져 VTOL(수직 이/착륙기) 조립교육을 받고 직접 제작하며 비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사 제안을 통해 작전 및 드론 관련분야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해병대 사령관 우수상을 총 4회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무장 투하상은 현재 생산하여 해병대에서 전술강화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멘티: 신규 사업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멘토: 2023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K-스타트업 국방리그 해병대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경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으며, 4,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교육을 받고 최종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포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컨설팅 등을 통해 시제품 개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종료 후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디딤돌 R&D 사업에 도전 중이며 '안전착륙'이라는 드론교육원을 개원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국가자격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여 현재 해병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멘티: 향후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멘토: 2028년 유인용 드론, 즉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안전장치의 개발도 마지막 단계로서 2030년 이후에는 판매 및 관리위주 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장기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현역 인원들이 전역과 함께 동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역 전에 제가 준비하고 전역과 동시에 함께 하기로 약속해 놓았습니다.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전환을 위해 관련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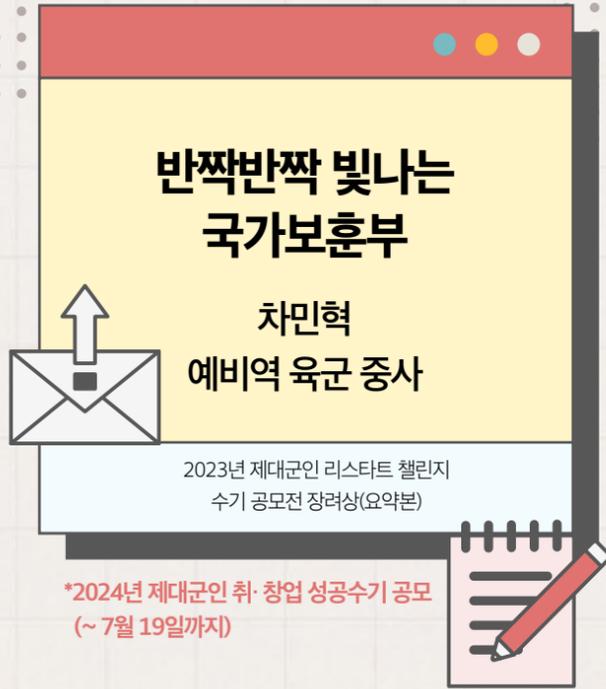
멘티: 대표님처럼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멘토: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을 같이 두루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드론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업계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만 취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택시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관되는 자격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흔히 드론 조종자라고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 자격증이며,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조종자증명'이다. 이 중에서 드론자격증으로 통칭되는 것이 바로 무인멀티콥터 종목이다. 상위 자격으로는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 2가지가 있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청사 건물 전체의 환경위생(화장실·사무실·복도 청소 등) 업무를 맡은 지도 어느새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역 후 새로운 취업 도전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국가보훈부! 이제는 제가 보훈부를 매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하는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육군 이등병에서 부사관으로 그리고 사회로

고등학생 2학년 때인 2002년 월드컵 시절,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근로자로 평생 일하신 의정부 주한미군 부대에서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이슈로 인해 정규직에서 조건부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어머니는 지병인 허리 디스크 악화로 수술 후 잘 걷지 못하게 되자 집안 분위기는 사뭇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기쁨이 잠시 제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광주비행장으로 홀로 전출 가는 기러기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과 넉넉지 못한 형편에 천만 원에 달했던 어머니의 병원비는 외아들이 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 사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 19살 되던 해 여름에 육군 이등병으로 자원입대하였고, 군대 생활은 당시 어려웠던 집안 문제를 잊고 지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군 생활에 적응한 저는 상병 계급을 달고 현역 부사관 지원 장려금을 받아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 때 은행에 들러 통장에 입금된 장려금을 모두 출금해 와서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 허리 밑에

봉투를 슬며시 넣었습니다. 직업군인을 지원하고 받은 이 돈이 틀림없이 어머니의 허리를 빨리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중엔 부대 일을 하고 주말엔 사이버대학에 다니며 생활했던 20대 초·중반 군대에서의 시간은 어느덧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셨고, 어머니의 허리도 상당히 회복되며 집안 사정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에는 사회로 진출하여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고, 그간 모았던 돈으로 평소 생각해 둔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창업과 폐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저의 첫 사업 분야는 군 생활 중 취미로 배웠던 기타(및 악기류)를 파는 악기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얻고, 각종 물품을 나르기 위한 차량도 사고, 마음이 맞는 동업자도 구하고, 자신 있게 시작한 사업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 1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의욕만 앞섰던 저는 상권 분석도 잘 몰랐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지 않은 채 군에서 모은 돈과 경험으로만 사업을 하려 했으니 당시 1년을 버틴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차기도 했고 무모하기도 했던 좌충우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었던 1년여간의 사업을 정리하며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과연 사업에 유리한 적성과 체질을 갖추고 있는가? 군 생활처럼 일종의 직장 생활이 내게 더 알맞지는 않을까? 28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뿐인 내가 취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학창 시절 특출난 공부 머리를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군 생활 및 사이버대학 공부 등 주어진 일과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화려하거나 큰 규모의 일이 아니라도 분명 제 능력에 맞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직장 생활도 제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상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계약직 자리긴 하지만 보안요원 채용 공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관공서라 익숙하기도 하고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저보다도 취업을 더 고대하는 목소리로 연락을 주신 상담사님의 취업 알선 전화에 저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 때 배운 대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고 고용노동부 지정 산하 고용복지센터에 계약직 보안요원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청사 인원 및 시설 보안요원직은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퇴근 후 헬스장을 다니며 6개월 동안 정말 보람 있게 일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저는 내친 김에 정규직에도 도전하고 싶어 퇴근한 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를 전담할 위생직 공무원을 모집하였는데 체력과 성실성에 자신 있었던 저는 위생직 공무원에 먼저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던 도중에 정규직 합격까지 성공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생직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

한차례 실패를 겪으며 어렵게 성공한 취업이었기에 사무업 무가 아닌 청소 업무라도 더없이 좋았습니다. 많은 제대군인 분이 익숙한 사무직 업무 위주의 취업을 구상하는 편이지만, 먼저 자기 적성을 고려한 뒤 각자도로 인식을 전환한다면 저처럼 현장직으로 진출하는 길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몸을 쓰는 직업은 그때마다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편이며,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게끔 신경 쓰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소 분야로 입직한 김에 아예 청소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과거 창업에는 비록 한 번 실패했지만, 사회에서 새로운 제 2의 취업 인생을 살게 해준 국가보훈부에 늘 고마워했던 저의 마음이 닿아서였을까요? 서울대가 법안화되며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했던 저는 다른 국립대를 거쳤다가 위생직의 퇴직 결원이 발생한 서울지방보훈청으로 전입을 지원해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서울지방보훈청에는 매일 수많은 보훈가족께서 방문하십니다. 유공자와 유가족, 참전 용사, 보훈 대상자, 그리고 저와 같은 제대군인 등의 방문객들은 각각각색 사연의 이야기를 갖고 오시며 방문 목적도 다양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분들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혜택을 생생하게 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세심하게 청소하는 이유

많은 민원인이 보훈부를 방문하실 때 그분들의 품격이 더욱 빛나도록 저도 이른 아침부터 청사 건물을 깨끗이 쓸고 닦습니다. 특히 고령자분이 많이 방문하시기에 현관이나 화장실 바닥은 수시로 물기가 없게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용모가 잘 보이시도록 거울도 잘 닦아 놓습니다. 제복을 입은 영웅들께서 레드카펫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현관과 복도는 왓슨 칠한

바닥이 반짝임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닦습니다. 물기를 짝 짜낸 수건으로 계단 핸드레일을 쪽 닦아 내려오며 민원인분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행여 냄새가 날까 봐 쓰레기통도 자주 비우고, 세면대 안쪽, 정수기 얼룩, 창틀 턱처럼 구석진 부분도 꼼꼼히 청소합니다. 존경하는 보훈가족분들로부터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칭찬을 받으면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간혹 어르신 민원인께서 대·소변기 주변에 실수하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른 청소하면 되니까요. 그보다 부디 많은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보훈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위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가치 찾기를 기원

먹먹한 안갯길 한가운데에서 보훈부의 도움을 받아 청소 분야로 취업하고, 운명처럼 보훈부에서 근무하게 된 저의 최종 목표는 정년퇴직 후 청소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가 필요한 곳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쾌히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퇴직하겠지만, 그때에는 꼭 성공한 창업주가 되어 다시 한번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멘토링 자격을 갖춘 당당한 선후배 멘토이자 관련 분야 멘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대군인으로서 취업과 창업을 모두 겪어보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둘 다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군 특성상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다른 특수한 환경의 업무를 하기에 전역한 후 취업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민간 회사와의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업 또한 사전의 철저한 전략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없이는 시도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며,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도 많아 사회생활 초보자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중·장기 복무 군인으로 헌신하다 사회로 복귀한 자랑스러운 제대군인을 위해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각종 지원 제도 말입니다. 센터 상담사분들은 취업 분야와 창업 분야의 베테랑 조력자로서 제대군인을 힘껏 도와주고 계십니다. 모든 군인은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지만, 그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선후배 제대군인분의 앞길에 국가보훈부와 함께 각자의 소중한 가치로 반짝 반짝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행복과 풍요로 가득한 아름다운 생활공간의 완성, 영림에서 시작됩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국내 인테리어 내장재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영림그룹은 고객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최상의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방의현
사원



유완수
주임



강현수
사원



박성호
사원



이동민
사원

‘영림’이라는 이름이 친숙한듯 낯선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방의현 사원** _____ 영림그룹은 영림입업, 영림화학, 영림산업의 3개 계열사로 구성된 종합인테리어 내장재 생산전문기업입니다.

영림입업은 1987년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인테리어 내장재의 몰딩, 도어 등의 생산전문회사로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창조해 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제품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국내 인테리어 내장재 산업에서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영림화학은 건강하고 편리한 공간창조 개발이라는 비전으로 성장해 왔으며 PVC 천장재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창조재 및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하여, 더욱 튼튼하고 아름다운 창을 통한 밝은 세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림산업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주방가구와 욕실 패키지를 통해 토털 인테리어를 구현하는 기업으로 인테리어필름, 소파, 블라인드, 조명 등을 아우르는 홈엔리빙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토털 인테리어 회사로서 영림그룹의 미래 주력사업을 이끌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림은 2014년을 기점으로 수출을 시작해 현재 세계 26개국으로 수출 국가를 확장하였습니다. 해외 공장 설립과 지사 설립, 협력업체 지정을 통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은 몇 분이나 되며 채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방의현 사원** _____ 저희 영림그룹은 인테리어 내장재 생산제조부터 대리점(B2B) 및 최종소비자(B2C)까지 모든 부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역장교를 채용하였는데 업무를 대하는 태도 및 인성적으로 책임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에 훌륭한 직원이라는 판단이 들어 지속적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림그룹에서 영업관리, 생산관리, 경영지원 등 모든 부서에서 전역 장교출신 직원이 약 30여 명이 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중에서 대위, 중위의 전역장교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역장교 채용 비율을 좀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국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영림그룹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유완수 주임** _____ 전역을 1년 앞두고 창설 부대로 편입되었습니다.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영림의 도어가 납품되었고, 그 품질의 우수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림이라는 브랜드를 인식하고 추후 전역 직전 영림 그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강현수 사원** _____ 전역 후 공부를 하면서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공고를 보던 중 영림임업 직원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관심 있는 분야와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직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호 사원** _____ 사회에서의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영철학, 비전 등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던 중 '영림'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림은 '원칙을 중시하는 정직한 기업'이라는 핵심가치와 '세계 26개국으로 수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였죠. 그런데 우연하게 인사 담당자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민 사원** _____ 장교 전역 이후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도움이 될까 고민하던 중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채용정보를 통해서 영림그룹에서 하반기 영업(관리) 분야에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집개요를 보니 제가 군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느껴져서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주세요.

○ **유완수 주임** _____ 영업부 직원으로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와 거래처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얼굴이 되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 개인의 업무적, 사회적 역량을 보다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강현수 사원** _____ 아무래도 영림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인테리어 제품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호 사원** _____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회사인 만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민 사원** _____ 영림에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보이는 영림 간판을 보며 아들인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대리점이 있는 이러한 큰 회사에 제가 일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완수 주임** _____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더불어 법인용 차량 지급, 업무용 휴대폰·카드 지급, 각종 경조사비 지원, 기숙사 지원 등 수많은 복지 혜택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황복현 회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외우고 계시는 것은 정말 타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현수 사원** _____ 좋은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유관 부서가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급여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행복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식사입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아침 먹으시간이 안되면 간편식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 **박성호 사원** _____ 앞서 말씀드린 타 회사에 비해 급여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점심 식대가 35,000원으로 회사가 직원들 복지에 진심입니다. 또, 구성원들 간의 끈끈함을 바탕으로 함께 어우러져 힘을 내는 분위기 역시 타 회사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민 사원** _____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 동료들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급여는 어느 회사와 비교해 봐도 높은 편입니다.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인데,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회사입니다.



사회에 먼저 나온 선배로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유완수 주임** _____ 선후배님들의 군생활 경험을 토대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림그룹에 지원하셔서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명실상부 국내 인테리어 내장재 업계의 선두주자인 영림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림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강현수 사원** _____ 군생활 동안 키워온 역량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역 후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호 사원** _____ 전역을 앞두고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조급함에 모든 것을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진행한다면 더욱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민 사원** _____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쳐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전역을 앞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위한 자기계발을 실시할 것입니다. ☎



2024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란?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목적

-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과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확대 도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자격 및 인증기준

- 신청자격: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 인증기준: 제대군인 채용 및 고용안정성, 모집 및 채용시스템, 고용환경 등



인증 절차



* 2024년 신청 및 접수 기간: 5. 27.~7. 26.(심사비용 무료)

인증 수여식

-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주간'에 수여
- * 인증주체(국가보훈부장관)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



인증 기대효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의 인증



- 제대군인 고용촉진
- 양질의 일자리 확보



- 리더 경험을 가진 인재 채용
- 인증 혜택

인증기업 현황

• 현 인증기업 수: 75개

(2023년 말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	16(-)	23(10)	25(11)	25(16)	23(15)	28(15)	32(14)	43(24)

* () 재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 인증받은 날부터 3년(2021년 이전 유효기간 2년)

인증 혜택

- 혜택 참여기관: 법무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대구·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무역보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하나·우리·농협·신한·SC제일·한국산업·광주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국가보훈부
- 주 요 혜 택: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관세조사 유예,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방송광고비 할인,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 등



*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일자리담당 ☎044-202-5736, 인증사무국 ☎02-6309-9055

가볍지 않은 영혼의 무게,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케어하다

(주)21그램그룹

누구에게나 이별은 낯설고 익숙해지기 어렵다. 500만을 넘긴 우리나라의 수많은 반려동물 가구에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KB경영연구소는 2023년 보고서에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에서 장례를 생각하는 반려가구가 64.5%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앞장선 기업이 있다. (주)21그램그룹이다.



글 이재경 사진 (주)21그램그룹 제공



반려동물 문화를 앞장서 이끄는 반려동물 플랫폼

(주)21그램그룹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각 장례식장 '21그램' 1·2·3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두 곳의 '우쭈쭈(UZUZU) 케어센터'를 설립했다.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과 동시에, 자사 서비스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 숙박 및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더위크엔 리조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21그램그룹은 반려동물 장례 문화와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서비스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쭈쭈 케어센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고,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장례 서비스와 장례 용품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다. 어디에서든 반려동물과의 가슴 아픈 이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네트워크를 마련하려는 계획도 있다. (주)21그램그룹은 이를 통해 한층 성장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루어 내기를 꿈꾼다. ☎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케어하는 (주)21그램그룹

(주)21그램그룹은 영혼의 무게가 21그램이라는 말에서 착안해, 반려동물도 영혼의 무게는 같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반려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을 반려동물의 죽음을 케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을 전공하던 권신구 대표는 반려동물과 살면서도 장례에 대해선 고민해 본 적이 없었으나,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계를 담당하며 당시 열악했던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주)21그램' 장례식장을 열어 본격적으로 동물장묘업에 뛰어 들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현행 법상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호자는 사체를 생할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을 진행해야 한다.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막을 정중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 장례 사업이 중요한 이유다. (주)21그램그룹은 현재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례식장 '21그램'과 '우쭈쭈 케어센터'

3호점까지 운영 중인 21그램 장례식장에서는 30만 원의 베이직 서비스부터 100만 원대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양한 장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연습, 추모, 화장, 유골함 안치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는 모두 밟는다. 유골로 제작하는 추모 보석인 '루세메' 서비스도 있다. 또한 동물의 특성을 반영해 햄스터 등 소동물은 유골이 손실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화장을 진행하는 배려도 돋보인다. 이 외에도 웹사이트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지막 반려일지' 백서를 제공하며 '이별준비 키트'도 판매 중이다. 추모를 돕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한다. (주)21그램그룹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쭈쭈(UZUZU) 케어센터'도 마련했다. 보호자 교육, 반려견 유치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호 텔링 등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진심어린 공감으로 반려인의 마음을 위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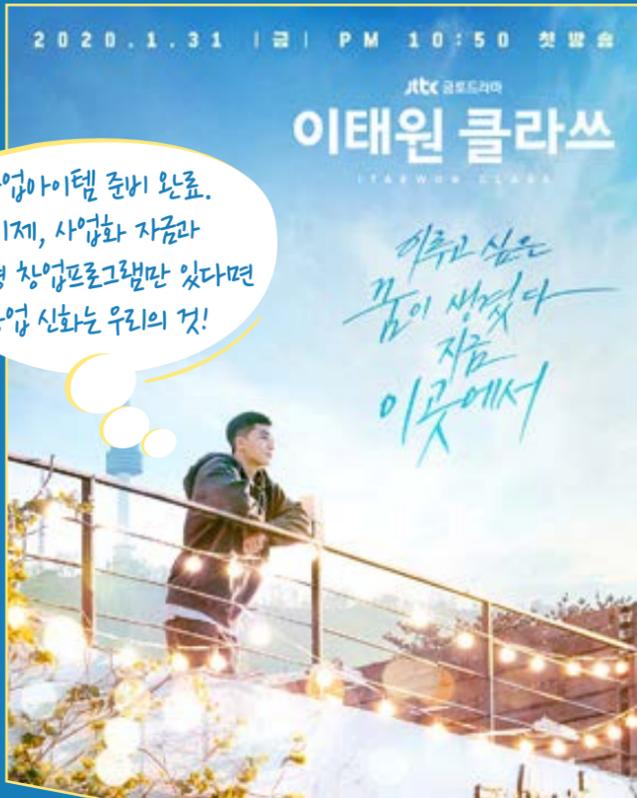
(주)21그램그룹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이별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 보호자가 충분한 추모의 시간을 보내고 위로받아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한다.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반려인이 슬픔, 고통, 상실감, 분노, 우울,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21그램은 애도 기간이 부족하거나 슬픔을 주변에 이해받지 못해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릴지도 모르는 반려인들을 케어하고자 한다. 권 대표는 21그램 장례식장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분에게 장문의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 '공감을 통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주)21그램그룹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주)21그램그룹은 반려동물 장례 산업뿐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사진 출처 JTBC



창업아이템 준비 완료.
이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만 있다면
창업 신화는 우리의 것!



소신에
대기가 없는
살을 살 겁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로 알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 패키지

정리 편집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 초기 투자유치까지 단계별 맞춤형 창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국내 최대 요식 기업인 장가에 복수를 꿈꾸는 박새로이(박서준), 장회장(유재명)의 자서전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읽고 외우며 7년간 원양어선을 타고 자본금을 모은다. 이태원 골목에 포장마차 '단밤'을 오픈하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만, 식당 운영과 기본기에만 충실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조이서(김다미)가 매니저로 합류하며 매장의 콘셉트를 바꾸고 SNS 홍보를 통해 가게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이태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작은 성공을 맛보지만 단밤의 인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식당의 기본은 맛인데,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 손님들이 한 번은 찾아도 재방문은 하지 않았던 것. 열정과 남다른 아이디어로 푹푹 뭉친 단밤 식구들이 창업 신화를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Q. 초기 창업 패키지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초기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의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반영한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 선정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Q. 사업 절차



Q. 지원대상 Check List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Tip Box

성장 잠재력을 싹 틔우는 창업 지원사업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의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 2)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이끌어 낸다.
- 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여성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등을 지원한다.
- 4) **창업존** Data, Network, AI 등 미래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짙은 유튜브 시청

예술, 문화, 철학과 역사 등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문학!
아는 만큼 시야는 넓어지고, 폭 넓은 대화가 가능해져 세상이 다채로워진다.
보다 풍성한 이야기와 만남을 위한 인문학 공부! 이제 유튜브로 끝내보자.

인문학 유튜브 추천



01



조승연의 탐구생활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조승연 작가의 유튜브 채널은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기분이 든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만큼 즐거운 게 있을까?'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행, 취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리, 품격이 높아지는 음악과 문학, 그리고 공연, 운동까지! 끝이 없는 흥미로운 주제로 풀어가는 한 바탕 이야기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채널인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유쾌하게 가꿔나갈 구독자와 함께하길 바란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몰랐던 세계가 열릴 테니 기대하시라.

02



충코의 철학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젊은 철학자, 이충녕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그는 MZ세대가 고민할 법한 일상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어디다 해서 고민의 깊이가 얕은 것은 아니다. 20-30대에 게 가장 필요한 질문들을 철학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답하는 '충코의 철학'은 그의 진심이 통해 어느덧 10만 구독자를 훌쩍 넘겼다. 채널주는 철학적 고찰을 담은 책을 펴내며 분야를 확장하기도 했다. 관련 주제의 영상과 연동되는 큐알코드를 삽입해 두었기에 책과 영상을 함께 보아도 더욱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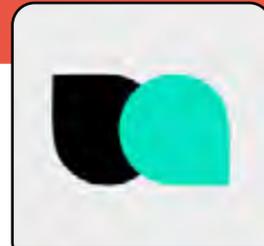
03



인문학이랑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아닌 자기 자신을 아는 마음이 아닐까. 나를 알기 전, 세상을 먼저 배우기 위한 유튜브를 켜보자. 그 옛날 전쟁의 역사와 정치의 흐름, 철학자들의 생각, 죽음과 삶에 대한 고찰... 이 모든 것을 담아둔 인문학 유튜브 채널이다.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아두면 '무조건' 쓸모 있는 인문학 창고이다. 고대 세계사를 배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문학과 철학사까지 모두 모아두었기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 진득하게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면 '인문학이랑' 손잡고 정주행을 시작해 보자.

04



예술의 이유

미술관에서 그림과 그림 사이를 오가며 기웃거렸던 경험이 있는가. 속으로는 '이 그림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하며 겉으로는 괜히 고개를 끄덕거리본 경험이 있다면 '예술의 이유' 채널을 추천한다. '오페리아', '만종', '모나리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등 제목만 들어도 알만한 명화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예술가들과 그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어 예술이 쉽고 재미 있어진다. 예술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을 얻으며 예술 여행을 떠나자.



백 투더잡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BACK TO

고인의 명복을 빌어 중생을 구제하는 승려

매골승



매골승(埋骨僧)이란 '뼈를 묻는 승려'라는 이름의 뜻대로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는 승려를 의미한다. 불교에서 승려들은 자비를 바탕으로 중생을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골승에게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그러한 종교적 소명을 다하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매골승은 과거에는 낯설지 않은 단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 공민왕이 신임했던 승려 출신 정치가 신돈 역시 매골승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의 매골승은 임종 전 사찰에 머물던 왕족, 귀족의 시신을 화장 후 다비와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했다. 이후에 진행되는 추모 의례도 매골승이 담당했으리라 추정된다. 당시 매골승은 빈자 구제를 위한 기관인 '대비원'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비원은 조선시대에 들어 '활인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어졌다. 이곳에서 매골승들은 빈민과 병자를 돌보고 시신을 수습해 매장하거나 화장했다. 조선 초기, 활인원에서 활동할 매골승을 국가 차원에서 선발하고 관장 규칙을 시행했던 기록도 남아 있다. 국가가 매골승을 관리하고 동원하던 시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매골승들은 한반도 각지의 민간에서 활동하며 소명을 다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추모하거나 흉년이나 전염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연고 없는 시신을 거두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골승은 이처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 승려들이었다.

평안한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일 매골승 & 장례지도사

죽음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다. 현대에는 장례지도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일을 돕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죽음이라는 큰 사건에 대처했는지 궁금해진다. 매골승,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 보았다.

정중한 의례로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다

장례지도사



최근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파묘》에서 유해진이 연기한 '영근'은 이장(移葬)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여기서 '영근'의 직업이 바로 장의사(장례지도사)다. 영화는 이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장의사를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거의 매골승과 오늘날의 장의사는 시신 관리와 추모 과정을 함께하며 유족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장의사는 특정 종교에 구애되지 않으며, 고객의 종교에 맞춰 제사 의식을 거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의사는 장례 절차 전반을 총괄하는 직업이다. 우선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장례 과정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상담한다. 이후 장례 관련 용품 준비와 시신의 염습 및 입관, 빈소 설치 등을 맡아서 하며 정중하게 제사 의식을 진행하여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는 시신을 영구차로 운반하여 매장 또는 화장 과정까지 책임진다. 장의사가 되려면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다.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나 직업훈련소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완료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상담을 진행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동시에, 시신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유족에게 위안을 주고 고인을 평안히 추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THE JOB



한반도 한가운데로 빠져드는 여정,

강원 양구

한반도 국토의 정중앙을 점으로 찍으면 어디쯤일까.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6·25전쟁 중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자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 양구를 찾았다.

글 이재경 사진 양구군청 및 한국관광공사 제공



Y a n g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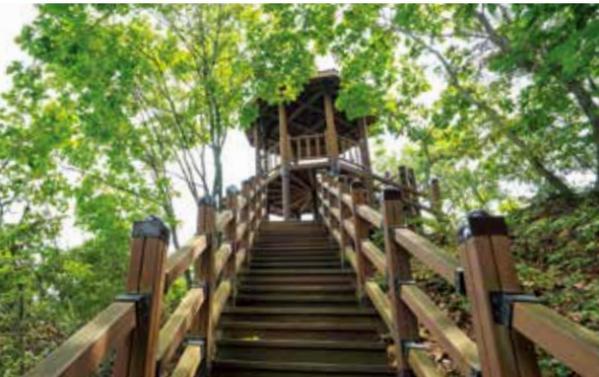
양구에서 벌어진 9개의 전투를 돌아보다

양구전쟁기념관

6월을 맞아 양구전쟁기념관으로 걸음을 옮겨 본다. 6·25전쟁 당시 양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9개의 격전이 남긴 기록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양구전쟁기념관이다. 여름으로 완연히 접어든 날씨에 양구전쟁기념관 마당으로 들어서면 야외에서부터 곳곳에 조형물과 전시물들이 보인다. 거대한 무기들, 상징탑, 콘크리트 벽면에 기댄 듯한 모습의 병사 조형물을 이어서 관람하다 보면 전쟁의 황량한 아픔을 생각해 보게 된다.

땀을 식히려 기념관 내부로 들어선다. 전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사진과 글이 전시 공간을 알차게 채우고 있다. 개인 유품, 실물 탄피나 전투모 등도 다양한 연출로 전시되어 전쟁 당시의 분위기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참전용사 이름을 나열한 긴 명단 앞에서는 애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멈추어 서게 된다. 전쟁기념관을 모두 둘러본 후 근처에 있는 양구통일관에서 북한의 실상과 우리의 통일정책 등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47-7



익숙해서 더욱 신기한 실루엣

한반도섬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양구와 어울리는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드넓은 파로호 가운데 떠 있는 익숙한 실루엣의 인공섬, 한반도섬이다. 섬에 본격적으로 방문하기 전 전망대에 올라 그 모습을 확인해 보자. 푸르고 푸른 풍경도 보기 좋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반도와 닮은 형태를 띠고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다.

한반도섬은 내부로 들어가 걷는 시간도 즐거운 곳이다. 나무데크 길을 따라 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파로호와 한반도섬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느긋하게 걸어 본다. 주변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여름의 우거진 녹음이 푸른 하늘과 파로호 물빛에 어우러져 아름답다. 섬 내부에도 볼거리가 많다. 한반도를 작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각 위치마다 상징물이 설치돼 있다. 태극기가 꽂힌 독도와 울릉도, 최북단의 백두산, 최남단의 제주도에 설치된 돌하르방 등이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한반도 각지의 인증샷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반도섬길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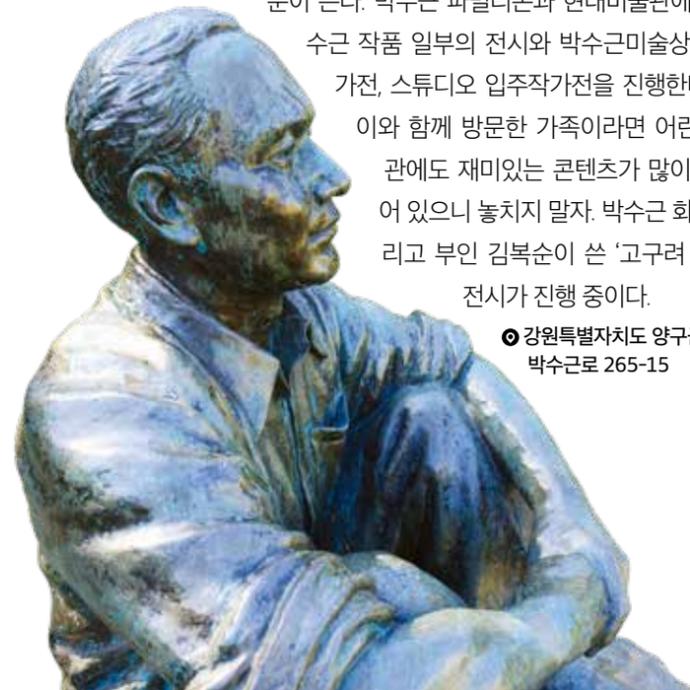
소박한 일상의 따뜻함을 담은 양구의 화가

박수근미술관

박수근미술관에서는 담쟁이와 나무들이 어우러져 박수근 화백의 화풍처럼 편안한 풍경이 내내 펼쳐진다. 5채의 건물 중 기념전시관에서 매표를 한 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기념전시관에서는 박수근의 작품들로 구성된 '평범한 날들의 찬란한 하루'가 전시 중이다.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선하고 진실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내려 했던 박수근 화백의 따뜻한 작품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어서 박수근 라키비움에서는 박수근의 작품들을 색다르게 감상 가능하다. 3D 입체영상과 AR 인터랙티브로 구성된 미디어아트, 박수근 작품을 재구성하여 프로젝트 맵핑으로 전시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영상 덕분에 작품 속의 푸근한 일상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박수근 파빌리온과 현대미술관에서는 박수근 작품 일부의 전시와 박수근미술상 수상작전, 스튜디오 입주작가전을 진행한다.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이라면 어린이미술관에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자. 박수근 화백이 그리고 부인 김복순이 쓴 '고구려 이야기' 전시가 진행 중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별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

국토정중앙 천문대

마지막 일정은 하절기 기준 밤 11시까지 운영하여 시간 걱정이 없는 국토정중앙 천문대다. 국토의 한가운데에 서서 올려다보는 밤하늘 모습을 상상해 보며 이곳을 찾았다. 천문대지만 높은 산중이 아니라 도촌리 배꼽마을 내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하기가 비교적 편하다. 1층과 2층에 있는 천체투영실, 전시관 등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우주 관련 영화 상영,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3층의 천체관측실을 이용하고 싶다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토정중앙 천문대에서는 '물멍', '불멍'에 이어 '별멍'이라는 이색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말 그대로 맨눈으로 별을 멎하니 바라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천체투영실에서 밤하늘 영상을 감상한 후 천문대 옥상에 누워 육안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휴식하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반려견과 동반해 흥미로운 강의를 듣고 밤하늘을 감상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에 따라 프로그램을 골라 보는 것도 좋겠다.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중앙로 127



우리 집 창문에 드는 햇빛

글 박성일 <선아키텍처 건축사사무소 소장>



Q 안녕하세요. 군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제겐 전역 후 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저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릴 적 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관사와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야 할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A 저 역시 두 번의 퇴사를 하고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지요. 새출발을 하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부로부터 안전한 집입니다. 이는 집의 기원에 가깝습니다. 아주 작은 곤충들도 알집을 만들거나 성충이 되기 위해 번데기집을 만듭니다. 더위나 추위, 또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죠. 이는 우리들의 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행히 인간은 진화했고 지금은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는 패시브 주택이 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 좋은 집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사와 아파트만 살았다고 해서 좋은 집의 요건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좋은 주거 양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할 이상이 거주하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 주거의 형태는 매우 보편적이며 효율적인 주거 양식입니다. 이런 공동 주택의 형태는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경제적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방과 주방이 연결되는 공간 구성은 정해진 면적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또한 모여 살기 때문에 풍부한 편의 시설과 도시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반면 모여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층간 소음이 대표적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무색무취한 공간 구성도 그렇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주방 앞 빈 공간에 식탁이 있으며 방이나 거실이나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양한 생활방식을 모두 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무난한 공간 구성의 장점이 한편으로 무색무취의 공간이 되어 획일화되기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의 집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건축가 루이스 칸의 피셔 하우스입니다. 그 집과 관련한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란 집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살게 됐을 때도 그들에게 잘 어울리고 차분함을 느끼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을 위해 지어진 집이 다른 가족에게도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문화일보 <지식카페>
55평 집 짓는 데 7년...
건축주는 “훌륭한 건축교육 받은 시간”

이 집은 두 개의 육면체 박스가 각도를 달리하며 붙어 있습니다. 박스 중 하나는 거실과 주방, 다른 하나는 현관과 부부방, 2층에 2개의 자녀방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3개와 거실-주방의 공간 구성은 지금의 아파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기능적 보편성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게 느껴지는 공간이 있죠. 피셔 하우스에는 두 개의 육면체 박스가 45도 정도 틀어져 있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의 풍경과 거실의 풍경이 다릅니다. 한 집이 다양한 시선을 가진다는 것은 공간이 풍부해짐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실과 식탁에서는 높은 층고와 더불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의 창에는 장인이 만든 목재 의자를 구성하여 건축의 미학적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집의 공간 구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가치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루이스 칸이 말한 누구에게나 좋은 공간의 특성이란 이런 것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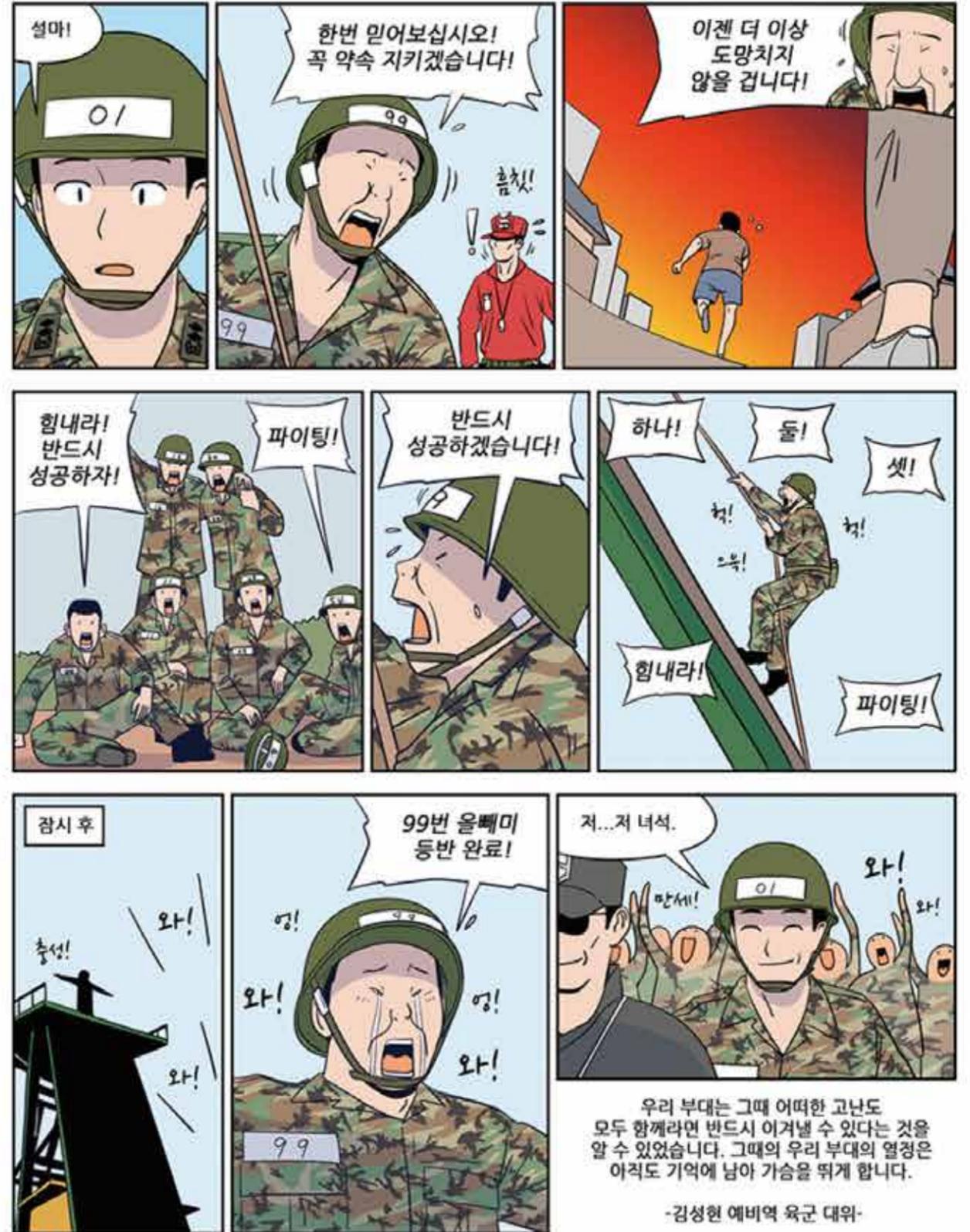
이제 우리의 주택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집이란 다른 가족이 살더라도 적합한 기능적 보편성과 함께 누구나 동의할 만한 좋은 공간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만한 공간을 충분히 고민한다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공감받는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까운 양평에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집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제 집은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집에서만큼은 가족과 시끄럽게 떠들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각자가 흠어져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경험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산이 보이는 쪽으로 큰 창을 내고 동그런 식탁을 두었습니다. 그 덕인지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산과 함께 사계절을 느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방처럼 현관에서 나뉘는 제 서재는 거실과 2미터 남짓의 거리지만 기억자로 꺾인 덕분에 풍경이 다르고 소음이 새 나가지 않습니다. 2층 방 하나는 아내의 서재가 되었습니다. 2층은 구조벽이 없어서 2개의 방을 터서 큰 서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살게 되더라도 각자의 방식에 맞추어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겠지요. 층고가 높은 공간은 따로 없지만 마당과 산의 풍경이 집을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켜 줍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집을 지을 토지의 조건도 다릅니다.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건축가와 함께 고민하며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좋은 집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자연도 리필이 되나요 6월 16일 세계 리필의 날

지구를 생각하는 이달의 기념일

‘세계 리필의 날’을 들어본 적 있는가. 사랑도 리필이 되냐는 어떤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소진된 자연도 리필이 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대신 우리는 플라스틱 낭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 ‘리필’로 자연이 전부 닳아버리지 않도록 지킬 순 있다.

정리 편집실

1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세계 리필의 날’

‘세계 리필의 날’은 대부분에게 생소한 기념일일 것이다. 이 기념일은 영국의 환경단체인 ‘시티 투 시(City to Sea)’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캠페인으로 부터 시작되어, 매년 6월 16일마다 리필 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리필’이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가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전해 재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멀쩡한 삼푸나 세제, 음료 통을 버려야 할 때 왠지 아깝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세계 리필의 날’은 이때 우리에게 리필을 제안한다. 리필 캠페인이 널리 확산돼 내용물을 충전해 주는 리필 스테이션이 늘어나고 리필 문화가 일반화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낭비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다

그렇다면, 낭비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시티 투 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는 2%도 되지 않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는 동안 바다에는 매년 최소 1,4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잘게 분해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를 오염시키며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거쳐 사람의 몸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인체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은 장기적으로 장기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2014년 유엔환경계획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세계 10대 환경문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3

리필 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의 노력과 ‘리필’ 앱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리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 단위의 움직임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 공간의 20%를 리필 혹은 소비자가 가져온 다회용기에 판매하는 공간으로 할애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트, 세븐일레븐, 아모레퍼시픽 등의 기업이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 및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세계 리필의 날을 제안한 시티 투 시는 ‘리필(Refill)’이라는 앱 서비스로 사람들이 리필 문화를 더 쉽게 접하도록 돕는다.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주변의 리필 스테이션과 다회용기 포장지 가능한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리필 스테이션이라 하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물병을 채울 수 있는 공공 음수대도 리필 스테이션의 일종이다.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시티 투 시’에서 제공하는 ‘리필(Refill)’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4

우리나라의 제로웨이스트 상점과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서

리필 캠페인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리필을 실천하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상점과 리필 스테이션은 우리 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리필 스테이션인 ‘알맹상점’은 삼푸, 화장품, 향신료, 시리얼 등 다양한 품목을 빈 용기에 담아갈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다. 다른 손님이 기부한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열탕 소독을 진행하니 위생 걱정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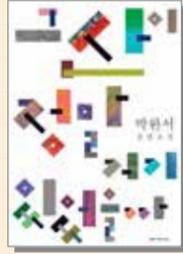
알맹상점은 서울에 있지만, 제로웨이스트 상점과 리필 스테이션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북, 대구,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소우주’, 대구의 ‘더커먼’, 제주의 ‘꽃마리협동조합’ 리필 스테이션 등이 성공적으로 리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집에 있는 빈 용기를 가지고, 용기 내서 우리 지역의 리필 캠페인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천 도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6월이다. 빼어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호국보훈의 가치와 희생을 되새겨 보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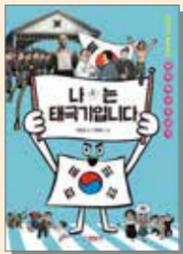
한국문학 최고의 유산이라 불리는 박완서 작가가 생애 마지막까지 직접 보고 다 듣고 매진한 작품. 시련으로 가득한 한국전쟁을 거쳐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 저자의 삶은 물론, 그를 닮은 작품 세계를 배우게 된다.



그날, 6월 25일

글 김미혜, 그림 최정인 | 천개의바람

역사적 사실을 다채로운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남쪽과 북쪽 강을 자유롭게 오가는 아기수달 달이가 해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비극, 6·25전쟁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태극기입니다

글 임정은, 그림 원혜진 | 그레이트북스

우리나라 근현대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한 태극기 이야기를 담은 책. 안중근이 손가락을 잘라 흘린 피로 대한독립을 쓴 태극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광주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던 태극기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장식했던 태극기가 전하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독마퀴즈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 초기 투자유치까지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은?

- 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② 초기 창업 패키지
- ③ 청소년 비즈쿨 ④ 거래 공정화

※ 6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팩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QUIZ

2024년 5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박찬욱(경기 화성), 정연경(강원 정선), 정형우(광주 서구), 홍현정(경기 성남), 한승구(경북 경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 드립니다.

※ 5월호 정답 ② 장애인 인터넷

6월 6·25 전쟁영웅

불굴의 투혼으로 적의 진격을 막은 포병의 영웅

대한민국 육군 중령 **장세풍**

1922. 10. 6. ~ 1950. 6. 26.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지구(현,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전투 시 장세풍 중령(당시 계급: 대위)은 축석령을 넘어 공격해 오는 적의 T-34전차를 105mm 곡사포로 직접 조준 발사해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곧이어 제2탄을 장전하려던 순간 뒤따르던 적 전차에서 발사한 포탄에 의해 그와 포반원 전원이 산화했다.

장세풍 중령 Story

1922년 10월 6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48년 4월 6일 조선경비사관학교
(현 육군사관학교) 수료 후 육군 소위 임관
1950년 12월 30일 을지무공훈장 추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